

상여소리 찾아나선 韓歌채록의 '먼 길'

「韓國輓歌集」(호남·제주편) 奇老乙씨



현대문명이 전통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 현대문학은 구비문학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상여소리를 집대성하게 됐다
기노을씨는 이 책을 통해 호남·제주지역의 만가 165편을 선보이고 있다.
비록 그 선율까지는 재현하지 못했지만 사실의 문학성만큼은 온전하게 되살려놓고 있다.

기노을씨.

‘山下地’라는 허전한 노래가 있는데,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 노래까지를 총칭하여 ‘만가’라 한다. 그가 이번 채록과정에서 유달리 크게 기쁨을 느꼈던 것이 바로 소멸되고 없다고 전해들었던 산하지를 해남의 70노인에게서 들은 것이었다.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山下地’ 찾아내

“만가는 어떤 체계적인 사실이나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여기저기서 한구절씩 인용하여 부르는 것이 특색이지요. 전체적으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단편적인 것들로, 공포(선소리꾼)는 가사가 미처 생각나지 않을 때엔 한번 메겼던 가사를 다시 메기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작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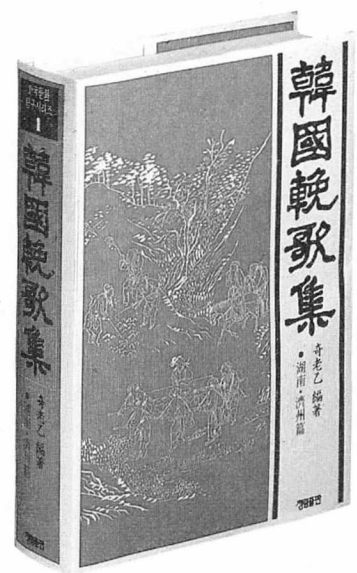
그래서 상여소리는 선소리꾼의 음악적·문학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포는 노래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위로하고 노래를 통하여 장례라는 의례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인데, 만가의 내용은 대체로 황천길을 떠나는 자의 외로움, 이승에 대한 미련,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추억과 반성,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 구전으로 정착된 가사들이다. 그러나 유능한 선소리꾼은 亡者の 일대기를 즉흥시로 엮어서 망자가 살아서 겪은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면서 장지까지 간다. 주로 불교의 「회심곡」 「백발가」를 비롯한 판소리 「춘향전」 「흥부전」 등 고전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죽은 이를 메고가면서 노래까지 부른 국민은 아마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식은 중국에서 배워왔지만 중국에서는 출상을 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아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중국사람들의 상여나가는 장면을 목격할 일이 있다는 그는 중국은 그들 특유의 나팔과 胡弓을 연주하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喪人들이 상여를 뒤따르며 號哭하는 풍습은 우리와 똑같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더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쉼씨는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의 국민성에서 찾고, 독특한 한국적 풍습이라고 받아들인다.

군청 문화공보실의 도움을 받거나 면직원이나 지방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유명한 선소리꾼을 찾아가면 두메산골을 몇십리씩 걷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작 사람을 만나지 못해 허탕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쉼씨는 들려준다.

“썰렁한 주막에서 막걸리잔을 앞에 놓고 그는 만가를 부르고 나는 옮겨적이고...” 채록의



장소는 때론 외딴산 밑 논두렁이거나 어떤 때는 장터이기도 했다. 대개가 60, 70대 노인들로 하나같이 명창들 못지않게 목청이 좋았는데, 실제로 영광읍의 한희천씨나, 군남면의 임판식씨 같은 이들은 그 지역 국악협회 지부장을 지내는 정통과 국악인들로 손꼽는 선소리꾼들이다.

“그가 만가를 부르면 나는 옮겨적이고”

“한번은 진도에서 버스를 타고가다가 상여 행렬과 마주쳤어요. 급히 뛰어내려 뒤따랐는데, 그 앞소리 메기는 것이 어찌나 애잔하든지 인생무상이 절로 느껴지고 망인과 아무 관련없는 나도 그 처량함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목에 녹음기를 걸어주고 녹음을 했는데 잡음이 한데 섞여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그는 못내 아쉬워한다.

쉼씨의 다음 만가 채록지는 충청도. 현재 충남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충북까지 마무리하려면 1년 정도가 더 걸릴 예정이다. 그리고 나면 경상남북도, 경기·강원. 이렇게 3권의 책이 더 마무리되기까지 그는 10년 세월을 잡아놓고 있다.

“실제로 운상장면을 본다든지, 녹음테이프를 틀어놓고 있으면 하루내내 들어도 결코 싫증이 느껴지지 않고, 그 애수면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란 분명 예술의 경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수천년을 이어오던 우리의 선율이 바로 자신의 세대에 이르러 인멸되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도 잊고 그의 마음은 오늘도 조금하듯만 하다.

— 정혜옥 기자

인간사에 있어 가장 마지막에 불러지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輓歌일 것이다. 죽은이의 육신을 누인 상여를 메고 장지로 향해 갈때 부르는 이 노래는 구전민요 중에서도 가장 토속적인 선율구조를 가진 것으로 죽음에 관한 우리 민족의 상상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시골의 산어귀에서 머리가 꾸뚱서는 무덤증과 함께 수월찮게 마주칠 수 있었던 상여행렬, 그 비애에 찬 가락만으로도 亡者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던 그 상여소리는 이제 좀처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 소리의 원류를 찾아 남도의 산골과 어항벽촌을 발달하지 않은 곳 없이 다니며 만가의 점차 잊혀져가는 흔적들을 채록한 기록들이 한 詩人의 손에 의해 900여페이지 두툼한 책으로 엮어졌다. 그러나 그는 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호남·제주’ 지역의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자신의 남은 생을 그 나머지 지역의 기록들에 바치겠다는 집념에 찬 사람이기도 하다.

6년여에 걸쳐 165편의 만가 채록

「韓國輓歌集」(湖南·濟州篇/청림출판사)의 저자 奇老乙(65·한국문인협회 회원)씨. 그는 자신을, 역사가도 민속학자도 아닌 다만 현대문명이 ‘전통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 현대문학은 ‘구비문학’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만가를 보전해야 할 당위성을 찾아내고, 우리나라만이 가지

고 있는 상여소리를 집대성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 ‘詩를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사명감에서 지난 83년 3월 전남 담양에서부터 시작된 만가 채록작업은 88년 11월 제주를 끝으로 꼬박 6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이후 1년여의 정리, 기록작업을 거쳐 최근 출간된 이 책에는 165편의 만가가, 비록 그 선율은 재현할 수 없지만 사실의 문학성은 유감없이 엮을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만가는 장례의식에 따라 있는 것이기에 때문에 그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만가만의 전승과 발전은 어려운데, 오늘날까지 단편적인 소개 말고는 이렇다 할 문헌 하나 없는 것이 참으로 서글픍니다.”

그에 따르면 만가는 행정구역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별개의 만가권이 존재, 대체로 1개군이 4,5개의 만가권으로 나뉘는데 심지어 10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이웃마을에서 서로 다른 만가를 부르며 상여를 메고가는 일도 있다 한다. 얼핏 들으면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뒷소리의 장단차이, 사실내용의 상이 등 각양각색이며, 또 상여의 행진에 있어서도 곡의 변화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만가의 묘미며, 정리·기록되어야 할 이유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輓歌에는 상여를 메고 묘지를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매장한 뒤 흙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 외에도 지금은 거의 소멸되었지만 봉분까지 완전히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